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박 영 선^{1*} · 정 영 숙²

¹대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²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and Cultural Background of Uzbekistan-Korean

Young-Sun Park^{1*} and Young-Sook Chung²

¹Dept. of Food and Nutrition, Daegu University, Daegu 712-714, Korea

²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Daegu 712-714, Korea

Abstract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dimensions and pattern types for the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of Uzbeki-Koreans and to find the determinants of the pattern types, taking food cultural backgrounds into account. Data were collected from 634 Koreans living in Uzbekistan and were factor- and cluster-analyzed. The results revealed three different dimensions and pattern types. Descriptive statistics demonstrated that perceptual pattern types, i.e., tradition recognized patterns, traditional living patterns, traditional modernized patterns, are likely to vary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and cultural background of Korean traditional food in Uzbekista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erceptual pattern types are discussed, and implications for food and nutrition specialists and food-marketers are provided.

Key words : Uzbekistan-Korean, Korean traditional food, food cultural pattern.

서 론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를 분류하면 절후(節候)에 따라 특별히 차려서 계절과 음식을 조화시키고 풍류를 즐기는 절식(節食), 시식(時食)이 있으며, 한 사람이 출생하여 생(生)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 겪는 몇 고비의 과정을 의미 있게 하는 출산과 혼례, 상례와 제례 등의 통과례 음식과 건국 이래 대대로 이어 내려온 궁중음식으로 나눌 수 있다.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우리는 전통 음식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특수 지역에서 다른 민족을 의식하며 그들과의 대비 속에서 생활하므로 횡적인 개념에서 우리의 전통 음식을 그들은 일반적으로 민족음식 또는 고려음식이라고 일컫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 식생활문화의 가치는 첫째, 생명 유지, 종족 보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타당성과 합리성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오랜 생활역정의 체험을 통하여 수정·보완을 거듭한 것이므로 현대 과학이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내포하고 있으며, 셋째, 각 민족만이 갖는 개성이 있어

산업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계화·대량화에서 초래되기 쉬운 문화의 획일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넷째, 각 민족들로 하여금 동질성·소속감·심리적 충족감을 갖게 하므로 문화유산으로 소중할 뿐 아니라 미래의 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식생활 문화는 변화를 거듭하면서 전통적 요소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주거 공간이나 복식 구조와는 달리 민족 정체성과 가장 연관성이 깊다. 실제로 고려인의 의식주 생활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Kang YS 2001, Jeong YJ 2003)에 의하면 한국인의 전통적 양식이 가장 잘 보존, 유지되고 있는 영역은 식생활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남쪽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접해 있고, 남서쪽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북쪽과 북서쪽은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입지적으로 동, 서양의 문화와 산물을 교역하는 통로의 요충지로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이동과 성쇠에 변화가 많았던 곳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우즈베크인 다수를 포함하여 고려인, 러시아인, 타지크인, 카자흐인, 타타르인 등 100여개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Lee et al 2004).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대거 이주한 계기는 1937

* Corresponding author : Young Sun Park, Tel : +82-53-850-6831, Fax : +82-53-850-6839, E-mail : yspark1@daegu.ac.kr

년 러시아 정부에 의한 강제 이주에서 비롯되었다. 그 당시 약 18만 명의 고려인이 연해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이듬해인 1938년에 2차 이주로 중앙아시아 각지와 기타 러시아 지역으로 분산 거주하게 되었다(Lee & Lee 2004). 1980년부터 민족주의와 이슬람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던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에 구소련이 와해되면서 독립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한국계 동포인 이들 고려인이 이민 1세대부터 4세대에 이르기까지 현지에 적응하여 생활하고, 고국 문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나름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와 더불어 이들은 민족성을 유지하고 민족 의식을 갖기 위해 문화적 공통성을 가지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이들 고려인 동포 사회와 본격적인 교류가 가능한 시기는 1992년 이후부터였으며, 그 당시 이들과 거주 지역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여러 유형의 제약으로 인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에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고 그것을 계기로 일반인들이 해외동포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이들 고려인의 문화적 동질성을 논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전통식생활 문화인데, 실제 이들은 한국전통 식생활 문화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실태 조사 과정에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러시아 음식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유목민 음식인 뿔로브, 사슬릭 등을 식생활의 일부로 적극 받아들이면서도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나 개장 등을 매우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김치를 비롯하여 개장은 고려인과 동일한 문화적 범주로 이해될 정도로 선호하는 전통 음식이며, 이들의 전통적 식생활과 문화적 토양이 타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쳐 김치와 개장은 거의 다민족 음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전통 음식은 우리 민족의 전통이 살아 있고 다른 민족이 우리의 민족 음식을 공유할 때 비로소 전통적 민족 음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와 습속(習俗)은 모두 변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체되거나 고정되어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려인의 식생활은 전통적인 음식문화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와 유목민 음식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부동한 민족 문화의 접촉은 상호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중성을 띄게 된다. 그러나 현재 고려인은 이러한 이중적 음식 문화 생활 속에서도 다수는 전통 음식 문화 생활을 위주로 하고 있다(Kang YS 2001, Lee et al 2004).

우즈베키스탄은 지리적으로 러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생활방식 및 문화적 유산은 한민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치·사회 및 사상적으로 러시아에 밀착될 수밖에 없었

기 때문에 개방화·서구화된 우리 사회와는 달리 폐쇄된 사회체제로 인해 기본적으로 한민족 고유의 전통적 풍습이나 관습이 외래 문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채로 보존·계승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생활문화의 전통성은 거주 지역의 이동에 따른 사회·문화적 배경 변화와 본국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거나 퇴적층으로 숨어 버린 것까지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해외동포의 식생활에서 관찰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100여개 소수민족 중 하나인 고려인의 식생활 문화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색을 바탕으로 러시아 문화권 속에서 독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른 민족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Lee & Lee 2004). 이러한 영향으로 전통 계승을 소중히 여기는 고려인의 민족성으로써 한국 전통 식생활 풍습과 관습이 비교적 잘 보존·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별로 연구가 되지 않았고,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Lee et al 2004)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고려인이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구조가 동질적인지 이질적인지를 알아보고, 인식 유형에 따라 식생활 문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민족의 동질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민족 생활 풍습인 고려인의 전통 식문화 양상의 실상을 알아보고 비교함으로써 민족공동체적 심성(心性)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마케팅 차원에서 식품산업의 미래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생활 속에서 한국 전통 음식 문화가 어떻게 지속되어 왔으며 현지 문화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왔는지에 대하여 탐색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통 요소에 대한 탐색과 그것을 지속하는 방법, 현지 식생활 문화와의 절충에 대한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의 식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한국 전통 음식사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자료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700명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8일에서 11월 29일까지 2개월 넘게 걸쳐 수집하였다.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 현지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 설문지는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한 것이며, 수집 방법은 고려인 주부들이 면접원의 역할을 하였고, 일정 분량의 설문지를 이들 주부들에게 배당시켜 조사 대상자들에게 설

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배부하여 응답하게 한 다음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우즈베키스탄의 중심 지역이면서 고려인 거주 비율이 높은 타슈켄트 지역이며, 타슈켄트에서 고려인의 주요 거주지인 콜호즈(협동농장)를 포함하여 인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 일부는 구 소련 시대의 기본 학제인 10학년을 이수한 사람들이다. 문자 해독력이 없는 고령층은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또는 면접 방식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총 700부였으나, 그 중 응답 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었거나 결측치가 다수 포함된 설문지는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어 제외하였다. 그 결과 분석에 적용된 조사 대상자수는 634명이다.

2.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1)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차원의 규명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차원의 규명은 인식 요인 간의 관계를 기초로 한다. 인식 요인 차원의 분석을 위해서는 공통 요인 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사용했는데, 이는 연구의 목적이 요인들 사이의 잠정적인 차원을 규명하는 것일 때, 또 분산의 구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때 적합하다. 요인 분석은 여러 개의 변인들을 서로 관련이 있는 몇 개의 요인으로 집약하여 묶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변인 간에 공통적인 요인 혹은 인자를 찾아내어 각 변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정도를 산출하고 그리고 공통적 구조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요인 분석에 의해 묶임 공통 요인은 Cronbach's α 를 통해 신뢰도 검증을 거쳤다. 요인 분석의 기본 모델은 아래와 같이 변수 X_j 의 값이 k 개의 공통 요인 F 와 직교 관계(orthogonal rotation)에 의해 설명된다.

$$X_j = a_{j1}F_1 + a_{j2}F_2 + \dots + a_{jk}F_k + d_jU_j$$

여기서 a_{jk} 는 공통 요인 F_k 에 대한 변수 X_j 의 부하 값이고, d_j 는 특수 요인 U_j 에 대한 부하 값이다. 여기서 공통 요인에 대한 변수의 요인 부하 값 제곱의 합은 공통분산비로서 변수 X_j 의 분산이 공통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들을 베리맥스(Varimax) 방법으로 회전하였다.

2)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유형의 규명

한국 전통 음식의 인식 유형의 분석에는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이 적용되었다. 군집 분석은 전체 고려인들의 인식 요인이 유사한 집단들로 묶는 방법이다. 만약 자료에 요인의

특성이 상이한 세 종류의 유형이 있다면 세 개의 군집이 나타난다. 여기서 각 고려인의 인식 요인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유사한 위치를 가진 주부끼리 묶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한 고려인의 인식 점수를 기초로 수행되었다. 인식 점수의 동질성을 측정하는 데는 유클리드 거리자승법(squared euclidean distance)이 사용되었고, 동질적인 고려인을 묶는 방법으로는 워드법(Ward's method)이 적용되었으며, 군집수를 결정하는 데는 묶임 계수(fusion coefficient)와 덴드로그램(dendrogram)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자료에 몇 개의 인식 유형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적으로 성별 분포는 남녀 비율이 각각 48.8%와 51.2%로 비교적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무학(10.8%)과 초등학교 졸업(4.1%)이 15% 정도 되며, 중졸(18.5%)과 고졸(19.0%)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전문대학 졸업이 40.4%로 가장 높았고, 대학 졸업이 7.4%로 비교적 낮은 분포를 이루고 있다. 연령은 20대가 42.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24.0%)이며, 60대 이상이 전체의 5.8%로 가장 낮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교육수준에서 전문대학 졸업자의 분포가 가장 높은 것도 이러한 20대의 연령분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 유형은 전체의 84.3%가 핵가족을 이루고 있고, 그 나머지 15.7%가 확대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혼 연수는 21~30년 된 부부가 3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경우는 11~20년(31.5%) 된 부부이며, 결혼한 지 31년을 경과한 경우가 10.5%로 10년 이하(19.6%)인 경우와 함께 비교적 낮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2.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차원 및 유형

1) 한국 전통 음식의 인식 차원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차원을 측정할 7개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요인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행한 결과와 요인별 측정 항목, 각 항목들의 회전(varimax rotation) 후 요인 적재량 및 신뢰도 계수(Cronbach α) 등이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 포함된 항목들은 스크리 검정(scree test) 결과 3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3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 총 분산은 73.61%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는 요인 부하값이 0.5 이상인 변수들을 중심으로 요약한 도표이다. 요인 1로 설명되는 분산은 31.83%로서 3개의 요인 중 상대적 설명력이 다소 높았다.

첫 번째 요인은 전통성 인지 차원으로 한국 전통 음식에

Table 1. Characteristics of housewives in the sample
(N=634)

Variables	Categories	N ^a	%
Gender	Male	299	48.8
	Female	314	51.2
Education	No school	66	10.8
	Elementary school	25	4.1
	Junior high school	113	18.5
	High school	116	19.0
	2 years college	247	40.4
	4 years university	45	7.4
Age	Below 29	267	42.2
	30~39	85	13.4
	40~49	152	24.0
	50~59	92	14.5
	Higher than 60	37	5.8
Family type	Nuclear family	532	84.3
	Extended family	99	15.7
Years of marriage	Low than 10	123	19.6
	11~20	197	31.5
	21~30	240	38.3
	More than 31	66	10.5

^a Each total is less than 634 due to missing data.

대해 잘 알고 있고 반상, 돌상, 회갑상, 제사상 등 한국 전통 상차림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 요인은 설, 추석 등과 같은 명절뿐 아니라 손님 초대 등과 같은 이벤트에도 한국 전통 음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 단순히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전통 음식을 계승·발전시켜야 하고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 요인은 '전통성-현대화 지향성'을 반영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은 한국 전통 음식이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래 음식과 비교할 때 매우 우수한 음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Table 3은 요인 분석에 포함된 7개의 항목들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로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p < 0.001$). 이러한 결과는 동 항목들이 한국 전통 음식의 인식 차원을 규명하는데 적합한 항목들이라는 점과 항목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몇 개의 요인으로 집약되어 공통적 요인 혹은 인자로 구성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Table 2. Results of factor analysis: Perceptual dimensions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0.869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0.862		
Use Korean traditional food for national holidays		0.958	
Use Korean traditional food for various events		0.957	
Need for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food		0.565	
Impact of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0.788
Compare Korean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0.733
Eigenvalue	2.46	1.45	1.24
% of Variance	31.83	22.16	19.62
% of Cumulative Variance	31.83	53.99	73.61
Cronbach's α	0.75	0.83	0.84

Note : Items loading 0.5 or higher.

2) 한국 전통 음식의 인식 유형

한국 전통 음식의 인식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군집 분석은 2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dendrogram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자료에 몇 개의 인식 패턴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즉, dendrogram을 이용하여 X축은 군집의 수를 나타내고, Y축은 fusion coefficient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에서 각 층별 간의 기울기 경사도에 따라서 cluster수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euclidean distance 측도를 이용하여 dendrogram으로 파악된 cluster의 수를 지정해 준 뒤 quick cluster 분석을 실행하여 인식 패턴의 유사성과 이질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자료에서 3 종류의 cluster가 나타났으며, Table 4에 군집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634명의 고려인들 중 19.2%는 cluster 1과 같은 인식 유형을, 22.5%는 cluster 2와 같은, 그리고 나머지 58.3%는 cluster 3과 같은 유형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세 개의 집단 중 cluster 3과 같은 인식 유형이 가장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군집 분석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사항은 한국 전통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외래 음식과 비교한 한국

Table 3. Results of analysis of variance

Items	MS	F
Use Korean traditional food for national holidays	72.107	69.162***
Use Korean traditional food for various events	64.829	53.430***
Need for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food	24.130	51.012***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5.137	9.645***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3.752	5.888***
Perception of the impact of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41.867	6.441**
Compare Korean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4.079	6.709**

** $p < 0.01$, *** $p < 0.001$.

Table 4. Results of cluster analysis : Perceptual patterns

Items	Cluster		
	1	2	3
Use Korean traditional food for national holidays	3	5	3
Use Korean traditional food for various events	3	5	3
Need for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food	1	1	5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5	4	3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5	3	4
Perception of the impact of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4	4	4
Compare Korean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4	4	4
Number of cases	115	135	350
Percent of cases	19.2	22.5	58.3

전통 음식의 우수성 등은 세 집단 모두 평균 4점을 나타내어 인식 수준의 전반적 분포가 높다는 것이다. 그 외의 항목들은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항목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cluster 1은 다른 두 cluster에 비해 한국 전통 음식과 전통 상차림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한국 전통 음식을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게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통성 지향 유형(tradition recognized pattern)'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Cluster 2는 설, 추석 등과 같은 고유 명절 때도 한국 전통 음식을 선호할 뿐 아니라 집에 손님을 초대하거나 다수가 모여 음식을 나누는 사회적 이벤트에도 한국 전통 음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게 개발하여 한국 전통 음식을 계승·발전시켜는 것에 대해서는 cluster 1 집단과 같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Cluster 1과 2는 대체로 전통성 지향 인식이 강하고 한국 전통 음식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하는 것에 대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공통성이 있는 반면, 차이점은 집단 1은 단순히 한국 전통 음식과 전통 상차림에 대해 인지하는 수준인데 비해 cluster 2는 고유 명절이나 각종 사회적 모임에 한국 전통 음식을 선호하고 또 실제 많이 이용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cluster는 '전통적 생활 유형(traditional living pattern)'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고려인의 58.3%를 차지하는 cluster 3은 고유 명절이나 각종 모임에 한국 전통 음식을 선호하는 정도도 평균 3점 정도로 보통 수준이고, 한국 전통 음식과 전통 상차림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도 각각 3점과 4점으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보통 정도의 인식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한국 전통 음식을 현대인의 식생활과 입맛에 맞게 개발하여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은 5점으로 cluster 1과 2의 1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cluster 3을 '현대화 지향 유형(traditional modernized pattern)' 집단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요인 분석에서 변인 간에 공통 요인 혹은 공통 인자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세 가지 차원 즉 '전통성 지향차원', '전통적 생활차원', '현대화 지향차원'은 전체 고려인들의 인식 수준이 비슷한 집단으로 묶는 군집 분석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유형의 이름을 인식 차원에서 명명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보고자 한다.

3. 한국 전통 음식의 인식 유형과 식생활 문화와의 관계

1) 인식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식 유형별로 성별, 교육, 연령, 가족 유형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가 Table 5에 요약되어 있다. 먼저 성별부터 살펴보면, 전통성 지향 집단은 남성(16.7%)에 비해 여성(21.0%)의 비율이 더 높았고, 전통적 생활 집단 내에서는 남성(23.2%)과 여성(22.4%)의 비율 차이가 0.8%에 불과하여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화 지향 집단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각각 56.5% vs. 60.1%로 남성의 비율적 분포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전통성

Table 5.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each group

Variables	Categories	Group			
		Tradition recognized pattern	Traditional living pattern	Traditional modernized pattern	Total %(N)
Number of cases	% ^a (N) ^b	19.2(115)	22.5(135)	58.3(350)	100(600)
Gender	Male	16.7	23.2	60.1	100(293)
	Female	21.0	22.4	56.5	100(286)
Education	No school	23.2	23.2	53.6	100(56)
	Elementary school	17.4	21.7	60.9	100(23)
	Junior high school	12.8	18.3	68.8	100(109)
	High school	19.1	28.2	52.7	100(110)
	2 years college	24.5	16.9	58.6	100(237)
	4 years university	28.9	15.6	55.6	100(45)
Age	Below 29	26.1	17.0	56.8	100(88)
	30~39	24.2	21.2	54.5	100(99)
	40~49	13.9	20.8	65.4	100(231)
	50~59	21.1	28.4	50.5	100(109)
	Higher than 60	20.0	22.9	57.1	100(70)
Family type	Nuclear family	23.0	20.2	56.8	100(500)
	Extended family	14.4	18.6	67.0	100(97)

^a Each cluster total is less than 115, 135, 350 due to missing data.

^b Total may not equal 100% due to rounding.

지향 집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좀 더 주도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현대화 지향 집단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좀 더 주도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교육의 경우 전체적으로 현대화 지향 집단의 분포가 더 높았고 학력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인식 유형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즉, 학력이 없는 무학의 경우 전통성 지향 유형과 전통적 생활 집단의 비율은 23.2%로 비슷했으나, 초등졸(21.7%)부터 중졸(18.3%)과 고졸(28.2%)에 이르기까지는 전통적 생활 집단의 비율이 더 높는데 비해 전문대학(24.5%)과 대졸(28.9%)부터는 전통성 인지 집단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집단별로 연령 분포를 비교해 보면 20대(26.1% vs. 17.0%)와 30대(24.2% vs. 21.2%)는 전통성 지향 집단이 전통적 생활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40대부터 50대, 6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전통성 지향 집단보다 전통적 생활 집단의 분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연령층은 전통성 지향 집단에 속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나이는 연령층은 전통적 생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족

유형에 따라서는 전통성 지향 집단에는 부부 및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분포가 다소 높았으나 전통적 생활 집단에는 부부, 자녀, 노부모 등으로 구성된 확대가족의 분포가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식 유형별 식생활 문화의 특성

인식 유형별 식생활 문화의 특성(Table 6)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전통 음식을 배우는데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친정어머니로부터 배웠다는 응답률이 95%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높았다. 한국 전통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세 집단 모두 여러 계기 중 가정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 전통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 전통 음식을 영양가가 좋아서 선호한다는 응답률은 현대화 지향 집단(12.3%)이 전통성 인지 집단(8.7%)이나 전통적 생활 집단(9.6%)보다

Table 6. Food culture tendencies in each group

Variables	Group			χ^2
	Tradition recognized pattern	Traditional living pattern	Traditional modernized pattern	
Impact on learning traditional food				
Husband's mother	2.8	3.1	1.2	2.49
Wife's mother	97.2	96.9	98.8	
Source of interests for traditional food				
Family education	94.8	94.1	96.3	1.30
Others	5.2	5.9	3.7	
Reason for preferring traditional food				
Nutrition	8.7	9.6	12.3	55.39**
Taste	85.2	67.4	84.9	
Used to eat	5.2	19.3	2.6	
Way of cooking	0.9	3.7	0.3	
Preparing food for national holidays				
Korean traditional food	0.9	98.5	14.0	405.06**
Foreign food	1.7	0	0	
Half & half	97.4	1.5	86.0	
Preparing food for family events				
Korean traditional food	1.7	96.1	13.7	189.73**
Foreign food	0.9	0	0	
Half & half	97.4	3.9	86.3	
Number of cases	115	135	350	

* $p < 0.05$, ** $p < 0.01$.

다소 더 높았다. 반면 맛이 좋아서 선호한다는 응답률은 전통성 인지 집단(85.2%)과 현대화 지향 집단(84.9%)에 비해 전통적 생활 집단(67.4%)이 더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한국 전통 음식이 맛에 익숙해서 선호한다는 응답은 다른 두 집단(2.6% vs. 5.2%)에 비해 전통적 생활 집단(19.3%)이 월등히 더 높았다. 조리 방법이 특이해서 좋아 한다는 응답률은 전체적인 비율은 낮았으나 상대적으로는 전통적 생활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대화 지향 집단은 한국 전통 음식이 보유하고 있는 영양으로 인해 선호하는데 비해 전통적 생활 집단은 상대적으로 맛에 익숙하고 또 조리 방법이 특이해서 좋아 하는 경향이 있다

Table 7. Factors preparing food and making out a menu in each group

Variables	Group			χ^2
	Tradition recognized pattern	Traditional living pattern	Traditional modernized pattern	
Factors preparing foods				
Family preferences	52.6	46.7	56.2	45.46**
Nutrition	34.2	29.6	37.8	
Price	6.1	14.8	3.5	
Health	5.3	6.7	1.4	
Taste	1.8	2.2	1.1	
Factors making out a menu				
Seasonal foods	4.3	7.5	3.5	15.68**
Family taste	77.4	70.1	72.8	
Economic factors	8.7	17.2	6.9	
Nutritional factors	9.6	5.2	16.8	
Number of cases	115	135	350	

* $p < 0.05$, ** $p < 0.01$.

는 것을 말해 준다. 한국 전통 음식이 맛이 좋아 선호하는 경향은 전통성 지향 집단과 현대화 지향 집단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명절과 행사시 외래 음식에 비해 한국 전통 음식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전통적 생활 집단이 각각 98.5%와 96.1%로 매우 높았으며, 세 집단 중 전통성 인지 집단의 비율이 2% 미만으로 매우 낮아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외래 음식과 한국 전통 음식을 반반씩 이용한다는 비율은 전통성 인지 집단과 현대화 지향 집단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두 집단 중 상대적으로 전통성 인지 집단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래 음식만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세 집단 모두 매우 낮은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세 집단 중 전통적 생활 집단은 외래 음식만을 선호하고 준비하는 가구가 한 가구도 없었다.

매일 식사 준비를 할 때 가족의 기호나 선호를 고려한다는 응답률은 세 집단 모두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으나 상대적 비율은 차이가 있었다. 세 집단 중 현대화 지향 집단(56.2%)과 전통성 인지 집단(52.6%)이 전통적 생활 집단(46.7%)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영양을 고려한다는 비율 역시 현대화 지향 집단(34.2%)과 전통성 인지 집단(29.6%)이 전통적 생활 집단(29.6%)보다 더 높았다. 그러

나 세 집단 중 상대적 비율은 현대화 지향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품의 가격과 건강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은 전통적 생활 집단이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단을 작성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 중 가족의 기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률이 세 집단 모두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음식을 준비할 때나 식단을 작성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다는 응답률뿐 아니라 계절 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는 응답률도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전통적 생활 집단이 더 높았다. 영양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은 현대화 지향 집단이 16.8%로 전통성 인지 집단의 9.6%와 전통적 생활 집단의 5.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음식에 관한 인식 차원 및 유형을 알아보고 유형별로 식생활 문화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고려인의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구조에 관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민족공동체 심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들이 가지는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차원 및 유형은 동질적 특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고려인들의 인식요인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구조화된 이질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분석에서 파악된 전통성 인지, 전통적 생활, 현대화 지향 성향은 고려인들의 인식 수준이 유사한 집단들로 묶는 군집 분석에서도 같은 맥락을 이루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한국 전통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외래 음식과 비교한 한국 전통 음식의 우수성 등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집단 간 차이점은 전통성 인지 집단은 한국 전통 음식과 전통 상차림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고, 전통적 생활 집단은 설, 추석 등과 같은 고유 명절과 손님을 접대하는 모임에도 한국 전통 음식을 선호하고, 한국의 음식문화를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게 개발하여 계승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현대화 지향 집단은 한국 전통 음식을 현대인의 식생활을 비롯하여 현대인의 입맛 기호에 맞게 개발하여 계승해야 한다는 인식은 강하게 가지고 있다.

둘째, 식사 준비를 할 때 가족의 기호와 선호 그리고 영양을 고려하는 비율은 현대화 지향 집단과 전통성 인지 집단이 전통적 생활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식품의 가격과 건강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은 전통적 생활 집단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식단 작성 시 고려하는 요인들 중 경제적 요인과 계절 식품 위주로 구성한다는 응답률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전통적 생활 집단이 가장 높았다. 영양을 고려하는 경

우는 현대화 지향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셋째, 한국 전통 음식은 다수가 친정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전통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가정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 전통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현대화 지향 집단은 한국 전통 음식이 보유하고 있는 영양으로 인해 선호하는데 비해 전통적 생활 집단은 조리 방법과 맛에 익숙해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통 음식이 맛이 좋아 선호하는 경향은 전통성 지향 집단과 현대화 지향 집단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명절과 행사시 한국 전통 음식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통적 생활 집단이 높았으나 전통성 인지 집단은 매우 낮았다. 외래 음식과 한국 전통 음식을 반반씩 이용하는 비율은 전통성 인지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집단 간 차이가 뚜렷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경우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차원 및 유형이 식생활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전통 음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품영양학자나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고려인들이 지닌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차원 및 유형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현대화 지향 유형의 인식 체계를 가진 고려인이 전체의 절반을 상회한다는 점과 이들 고려인들의 학력이 높다는 점 그리고 한국 전통 음식을 선호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기호나 취향에 맞게 전통 음식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개혁·개방 및 산업화·자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 진출, 소비 의식의 변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 가정기능의 사회화에 따라 식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 전통 음식을 접할 기회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과 이와 더불어 고려인의 식생활도 변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 파악된 현대화 지향 유형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통 식품이 지닌 고유성 및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현대화·대중화·과학화하여 전통 음식을 계승함과 더불어 중앙아시아의 다른 민족들에게도 더욱 넓은 범위로 우리의 고유 음식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7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습니다.

문 헌

- Jeong JY (2003) Food culture and identity of the Koreans in Uzbekistan. *MS thesi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Kang JS (2001) National identity of Koreans and living culture in central Asia.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8: 105-131.
- Lee YS, Lee JS, Lee SH, Joung JK (2004) A study on the dwellings of Korean diaspora of Kazakhstan in central Asia.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 95-112.
- Lee YS, Lee SH (2004) A study on the dwellings of Korean diaspora of Uzbekista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 1-18.
- (2008년 8월 4일 접수, 2008년 10월 14일 채택)